

색다른 순천의 맛에 반하고 멋에 취한다

7~9일 '푸드아트 페스티벌' ... 요리교실·미식대접·글로벌 푸드존
아트마켓·유명작품 경매·거리 댄스파티·초청 공연 등 행사 다채

순천시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2018 푸드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순천의 식재료를 활용한 푸드로드 및 '마식 Day'를 운영, 매일 색다른 순천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전국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된 아트공예마켓과 정원마켓은 다양한 볼거리와 색다른 즐거움을 줄 것이다.

심터를 강화해 축제장 곳곳에서 편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으며 수준 높은 해외초청 거리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계획이다.

◇순천의 맛에 반하다

올해는 축제장을 남포오거리에서 의료원 로터리까지 확대했다. 광주은행 앞에 주무대를 설치하고 푸드부스와 아트공예마켓, 정원마켓을 설치할 예정이다.

축제 첫날인 7일은 '고들빼기(9-2=7)데이'로 고들빼기김치 담그기 체험과 비빔밥 나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8일은 '국밥(98)데이'로 옷장 국밥거리를 방문해 SNS 인증샷을 찍으면 1000원 상당의 축제 상품권을 증정한다. 마지막날인 9일은 '구구(99)데이'로 9.9m 대왕조지 만들기, 500원 꼬치 뽑기 이벤트 등 색다른 볼거리가 열린다.

중앙로 푸드로드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주전부리 음식을 푸드데이

너 20개 팀과 푸드포차 20개 팀에서 판매한다.

올해는 경연행사도 강화했다.

8일 토요일에는 '제5회 순천의 맛 전국음식경연대회'가 9일 일요일에는 '순천의 최고의 맛집을 찾아라! 제2회 순천미식대접'이 '담요리'를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를 화로 불에 구워먹을 수 있는 'BBQ 파티'를 운영하여 온 가족이 캠핑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셰프와 함께하는 시민 요리교실과 푸드 만들기 체험, 중국·일본 음식을 한곳에서 접할 수 있는 글로벌 푸드존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순천의 멋에 취하다

아트로드에서는 전국의 예술가가 만든 공예품을 아트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13종의 다양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정원마켓에서는 미니정원과 소품 등을 판매하고 한옥 글방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 놀이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옥글방에 위치한 웹툰 체험존에서는 웹툰 그리기, 코스프레 체험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와 함께 지역예술인 등이 참여하는 아트퍼포먼스, 창작예술촌 작품 전시 및 유명작품·소품 경매도 열린다.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중앙사거리 일원에서 '2018 푸드아트 페스티벌'이 열린다. 지난해 페스티벌이 열렸던 푸드로드. <순천시 제공>

7일 예정된 개막식은 여성 5인조 퓨전 앙상블팀 DIO와 남성 3인조 빅맨 싱어즈의 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가수 다비치의 무대까지 풍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DJ와 함께하는 거리 댄스파티는 매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진행돼 파티 분위기를 연출한다.

또 청소년 수련관에 키즈존을 구성하여 에어바운스 놀이터를 설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했으며 VR 체험관에서 물고기 로봇 아이로, 안내로봇 퓨로2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 팝업북 만들기 체험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색 체험이 될 예정이다.

씨내몰에서는 특별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됐다. 거꾸로방, 거울미로 등 트

릭아트 및 증강현실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씨내몰에서는 이번 축제 기간에 맞춰 특별 할인행사를 열어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8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모든 방문객이 주인이 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의 자원의 음식·예술·정원을 활용한 축제에 도심 재생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관광객도 심 유입을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 푸드아트 페스티벌은 지난해 수익형 축제와 원도심 활성화 모델로서 가능성을 인정받아 전라남도 대표 축제 및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에 선정됐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전남 첫 에너지백서 발간 눈길

순천시가 전남 지자체 처음으로 에너지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 백서에는 순천시가 2015년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 선포 이후 에너지 주요정책과 추진상황 등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순천시는 시의 주요 에너지 정책과 분야별 추진현황을 관련기관과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해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에너지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백서는 제1장 정부 에너지 정책, 제2장 순천시 에너지 정책, 제3장 순천시 에너지 추진실적, 제4장 3030 에너지 생산·복지도시 순천 추진계획, 제5장 기타

(녹색건축물지원 및 재생에너지의 이해), 부록(에너지 관련 법령 및 조례)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3030 에너지 생산·복지도시 순천 추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을 뛰어 넘는 에너지 자립을 3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 설비 효율화 대책 등을 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5년을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언하고 에너지 5대 실천 분야로 에너지 생산과 에너지 교육,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복지, 에너지 생태 관광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중국 타이위안시 자매도시 의향서 체결

순천시가 세계 최대규모의 마그네슘산업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太原)시와 자매도시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순천시에 따르면 의향서 체결을 위해 지난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타이위안시 왕아이치 부시장 일행이 순천을 방문했다.

타이위안시는 중국 산시성의 성도(省都)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 교통의 중심지이며, 기계장비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다.

특히 타이위안시의 마그네슘 합금 공장 연구소는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자매도시 의향서 체결을 계기로 두 도시 간 협력의 물꼬를 트게 되면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그네슘 클러스터 단지 조성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타이위안시는 2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답게 세계를 주름잡는 진상(晉商), 쌍탑사, 천룡산 굴, 송선사 등 많은 명승고적을 가지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왼쪽)이 지난날 31일 방한한 중국 산시성 타이위안시 왕아이치 부시장과 자매도시 의향서를 체결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습지, 순천만국가정원 등 생태관광자원을 보유한 순천시와 상호 관광교류 확대도 기대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중국 타이위안시 대표단의 방문은 의향서 체결과 함께 공식적인 자매도시 추진에 따른 필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방문이며, 향후 순천시 대표단이 중국 방문 시 공식적인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시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순천시는 '라돈' 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순천시 거주자이며 대여기간은 최대 2일이다. 신청은 지난 3일부터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으며 연중 가능하다.

라돈은 암석이나 토양 등에서 존재하는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무색·무취·무미의 기체로 지굴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자연방사성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라돈 권고 기준은 148벵크렐(Bq/m³)이며 신축공동주택은 200벵크렐(Bq/m³)이다. 라돈은 공기보다 가벼운 만큼 라돈 노출을 줄이기 위해 하루 최소 30분 이상 환기가 필요하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순천만정원 야간 운영 다음달 말까지 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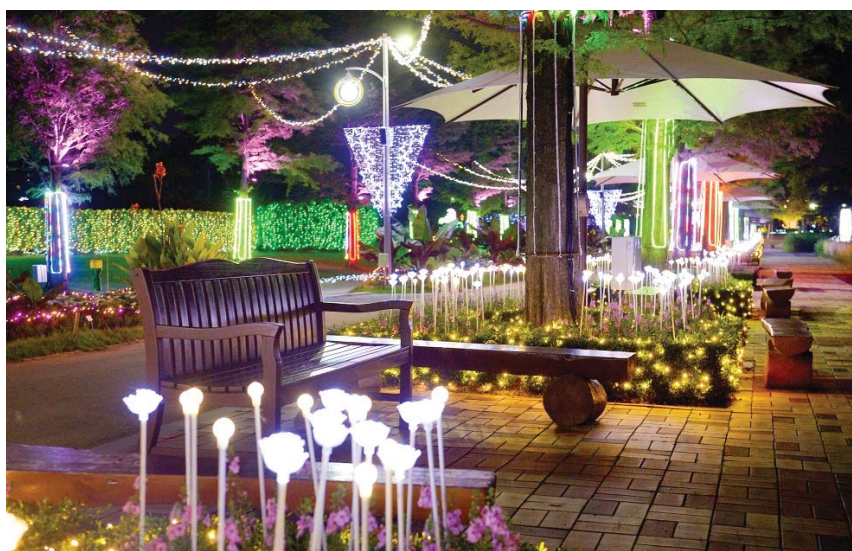
순천시는 오는 10월31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의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한다.

야간 입장권 구매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가능하며 오후 9시까지 정원의 밤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후 순천만국가정원에는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히며 동문 지역은 호수정원 일원, 서문은 WWT습지와 한국정원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야간개장 기간인 오는 21일부터는 가을 정원갈대축제가 시작되며 각종 퍼포먼스 공연, 공포체험 등 다채로운 야간 이벤트도 추가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타 지역 방문객은 물론 시민들을 위해 야간 연장운영을 실시한다"며 "야간 개장을 통해 주변 상권과



순천만국가정원 야간경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지난날 31일부터 3일간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가 펼쳐

졌으며 오는 14일부터는 한평정원페스티벌이, 21일부터는 정원갈대축제가 시작된다.

/순천=박선현 기자 psc@kwangju.co.kr

세얼굴

“미래 역량 키우는 행복 교육 실천할 것”

이길훈 순천교육장

“행복 중심 순천교육과 소통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이길훈(60) 순천교육장은 “아이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장은 또 “교육의 본질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가족과 소통하면서 순천의

아이를 키우는데 앞장서겠다”고덧 붙였다.

영암 출신인 이 교육장은 장성중학교 교감과 강진

중학교 교장, 전남도교육청 학생생활안전과 과장을 등을 역임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태양광 연계 ESS 설치 전문

제품 | SAMSUNG LG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REC가중치 5.0배 (2019년까지 연장)

설치방법 : ① 렌탈 : 설치비용 0원 ② 무담보 : 90% 신용대출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썬그린에너지(주)

상담 1577-3093 ◀광주,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구례, 곡성, 장흥, 화순
1566-1394 ◀목포, 나주, 해남, 완도, 진도, 강진, 함평, 영광, 무안, 신안

ESS 통합시스템

ESS는 핵심인 리튬배터리를 비롯한 모든 구성요소를 직접 생산하고, 사업성 분석부터 설계, 시공, 사후관리까지 수행함으로써 ESS에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